

일본의 양계소식

산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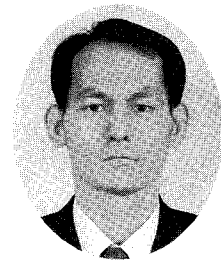
□ 2003년도 입추실적은 5년만에 감소 예상

농림수산성통계정보부는 지난달 10월 27일, 금년도 1월~9월까지의 실제 입추 실적을 집계하고, 10~12월의 예상수수를 기초로 한 금년도 입추실적을 계산한 결과, 산란계는 5년 만에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발표하였다.

9월의 병아리 부화수수 통계에 의하면 전국의 부화수수는 산란계용 암병아리가 1,053만 9천수로 전년대비 107.6%증가한 것이었으나, 그중에서 출하된 숫자는 992만수로 2002년 9월보다는 6.6% 증가하였다.

산란계용 종계 출하수수는 11만 9천수였고, 1~9월까지의 산란용 실용계 암병아리의 입추수수의 누계는 8,428만 4천수로 전년동기대비 0.2% 증가한 것이었으나, 10월 상순에 청취한 향후 3개월의 병아리 출하예정수수는 전년동기 대비로 10월은 100%, 11월은 91%, 12월은 93%로 감소하는 추세였고, 이에 기초한 2003년도 예상 입추수수 누계는 전년과 비교하여 산란계 암병아리가 1억 1,024만 1천수로 98.9%, 브로일러의 경우는 0.6%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산란계의 입추감소는 불경기에 따른 소비위축과 가공 수입란의 영향으로 난가의 하락이 예상하였던 것보다 크고, 특히 금년도 후반기부터 입추가 억제되었기 때문으로 생각 된다(계명신문 발췌).



윤 병 선
한경대 KRRC 전임연구원/농학박사

□ 세븐일레븐과 공동으로 계란수프 개발

(주)교와(協和醱酵工業)는 냉동건조 타입의 컵으로 포장된 즉석 수프 「부풀어 오른 계란 수프」를 (주)세븐일레븐·Japan과 공동으로 개발하여, 10월 29일 수도원의 세븐일레븐을 시작으로 11월 12일부터 전국의 세븐일레븐 점포에서 판매하게 된다.

(주)교와 공동 개발한 수프는 세븐일레븐의 오리지날 상품으로 최대 특징인 “부풀어 오른 감”을 나타내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부드러운 식감(食感)의 부풀어 오른 계란」을 실현시키고, 더욱이 자연의 건강한 계란인 황색의 실현에도 노력하였다.

수프는 정성스럽게 끓인 국처럼 산뜻한 맛으로 투명하면서도 진한 감을 주었다. 재료로는 시금치를 많이 사용하였고 아삭아삭한 느낌이 나도록 흰파를 넣어 색의 균형을 잘 맞추고 있다(계명신문발췌).

□ 계란생산비 1kg당 150엔(1,500원)

농림수산성통계부는 10월 23일 2002년도 농업경영부분통계를 공표하여 3,000수 이상의 산란농가 1호당 평균 농업소득이 573만1,700엔(57,317,000원)으로 2001년보다 21.9%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는데, 그 원인을 난가상승과 생산량의 증가로 보고있다.

경영비를 사육수수료로 나눈 1수당 경영비(생산비)는 2,319엔(23,190원)으로 동년 대비 99.5%였으며, 정상란 생산비로 계산한 1Kg당 생산비는 2엔 상승한 150엔(1,500원)이었다. 이것은 판매점의 특별판매 인하가격(10개 포장)과 비교해도 평균생산비를 상회하는 가격이다(계명신문발췌).

표. 동경계란가격

(단위: 엔, 일본 계명신문 발췌)

크 기	LL	L	M	MS	S	SS	입하량
가 격	143	156	168	153	148	81	1,590t



특 보

□ 계육관세 폐지 반대 50만인 서명운동 개시

(사)일본식조협회는, 일본과 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협약에서 계육관세의 예외취급을 얻어내기 위하여 50만인 규모의 서명운동을 개시하였다.

이번 협의에서 태국측은 미국과 함께 닭고기를 최대의 관심품목으로, 닭고기 관세철폐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일본식조협회에서는, 닭고기를 예외조항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운동을 추진해왔지만, 앞으로는 양계업계뿐만 아니라 소비자 등을 포함한 전국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대규모 서명운동을 전개하도록 하였다.

식조협회의 소매부회는 각 점포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안전함을 지금처럼 앞으로도 지킬 수 있는 것은 국산 닭고기」 임을 호소하여, 일본 닭고기생산을 응원하기 위한 서명을 부탁하기로 정하고, 11월초부터는 소비자에게 전할 팜플렛과 서명용지를 발송하여 서명모집을 시작하였다(계명신문발췌).

□ 중국산 닭고기에서 뉴캐슬 바이러스 검출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은 10월 24일, 중국 요녕성의 도계장에서 생산된 닭고기에서 뉴캐슬병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이의 도계시설과 그 주변의 50km 이내 지역에서 생산된 가금류의 고기 수입을 중지시켰다.

이것은 동물검역소가 수입검역의 축출에 의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였을 때, 뉴캐슬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서 그 후 바이러스 독성이 강독주인 것이 확인되어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위생관리과는 24일부로 중국정부에 통지하면서, 해당 도계장과 주변지역에서 생산된 가금육의 수입을 금지시켰다(계명신문발췌).

□ 공동으로 골덴네크 판매-21세기 회 03

육계업계의 젊은 사람들로 조직된 「21세기회 03」는 10월 25일 동경의 야에주후지야(八重洲富士屋)호텔에서 「10주년 기념사업」을 개최하였다.

10주년을 기념하여 「21세기회 03」의 닭으로 공동판매하는 “골덴네크”는 로드아일랜드 레드 암닭과 횡반플리머드록 수닭을 교배시킨 1대잡종으로, 목에 금색의 깃털이 나는 것이 특징이다. 금색의 깃털이 나타나는 것은 120일령 정도의 사육기간이 필요하다. 재래종 100%로 평사에서 사육하며 특정 JAS의 기준을 갖춘 사육시설에서(1㎡당 10수) 기른다.

126일령의 출하체중은 수닭은 3.5kg 암닭은 2.7kg으로 자세한 자료는 가가와현(香川県) 축산시험장에 의뢰하여 2004년 1월에 행해지는 산육능력 검정 시험자료로 출품할 예정이다. 이번에 사육중인 병아리는 (쥬모리(森)부화장 와까야마(和歌山)농장에서 부화하였고 오오사까(大阪)에서 도계하며, 1회 출하는 8월 22일 입추 한 27수로 크리스마스를 맞출 예정이며, 10월 10일 이후 매주 45수씩 입추 한 병아리는 내년 2월 중순 경 출하할 예정이다(계명신문발췌).

□ 육계 생산비 생체 1kg당 1,430원

농림수산성통계부에서 10월 23일 발표한 2002년 생산비는 연간 3만수 이상을 출하하는 육계농가의 호당 평균소득은 7.6% 증가한 81,874,000원으로 밝혀졌는데, 그 원인은 판매수수의 증가였다.

1수당 생산비는 4,130원으로 전년보다 70원 감소하였고 출하체중은 2.89kg으로 생체 1kg당 생산비는 전년보다 7.1% 감소한(110원) 1,430원으로 밝혀졌다(계명신문발췌).